

## 빵집이 다섯 개 있는 동네

최정례

우리 동네엔 빵집이 다섯 개 있다  
빠리바게뜨, 엠마  
김창근 베이커리, 신라당, 뚜레주르

빠리바게뜨에서는 쿠폰을 주고  
엠마는 간판이 크고  
김창근 베이커리는 유통기한  
다 된 빵을 덩으로 준다  
신라당은 오래 돼서  
뚜레주르는 친절이 지나쳐서

그래서  
나는 빠리바게뜨에 가고  
나도 모르게 엠마에도 간다  
미장원 냄새가 싫어서 빠르게 지나치면  
김창근 베이커리가 나온다  
내가 어렸을 땐  
학교에서 급식으로 옥수수빵을 주었는데  
하면서 신라당을 가고  
무심코 뚜레주르도 가게 된다

밥 먹기 싫어서 빵을 사고  
애들한테도  
간단하게 빵 먹어라 한다

우리 동네엔 교회가 여섯이다  
형님은 고3 딸 때문에 새벽교회를 다니고  
윤희 엄마는 병들어 복음교회를 가고  
은영이는 성가대 지휘자라서 주말엔 없다  
넌 뭘 믿고 교회에 안나가냐고  
겸손하라고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라며  
내 귀에 테이프를 꽂아놓는다

우리 동네엔 빵집이 다섯  
교회가 여섯 미장원이 일곱이다  
사람들은 뭇듯이 걷고  
누구나 다 파마를 염색을 하고  
상가 입구에선 영생의 전도지를 돌린다  
줄줄이 고깃집이 있고  
김밥집이 있고  
두 집 걸러 빵냄새가 나서  
안 살 수가 없다  
그렇다  
살 수밖에 없다



‘사다(買)’  
와  
‘살다(生)’

# 화자와 주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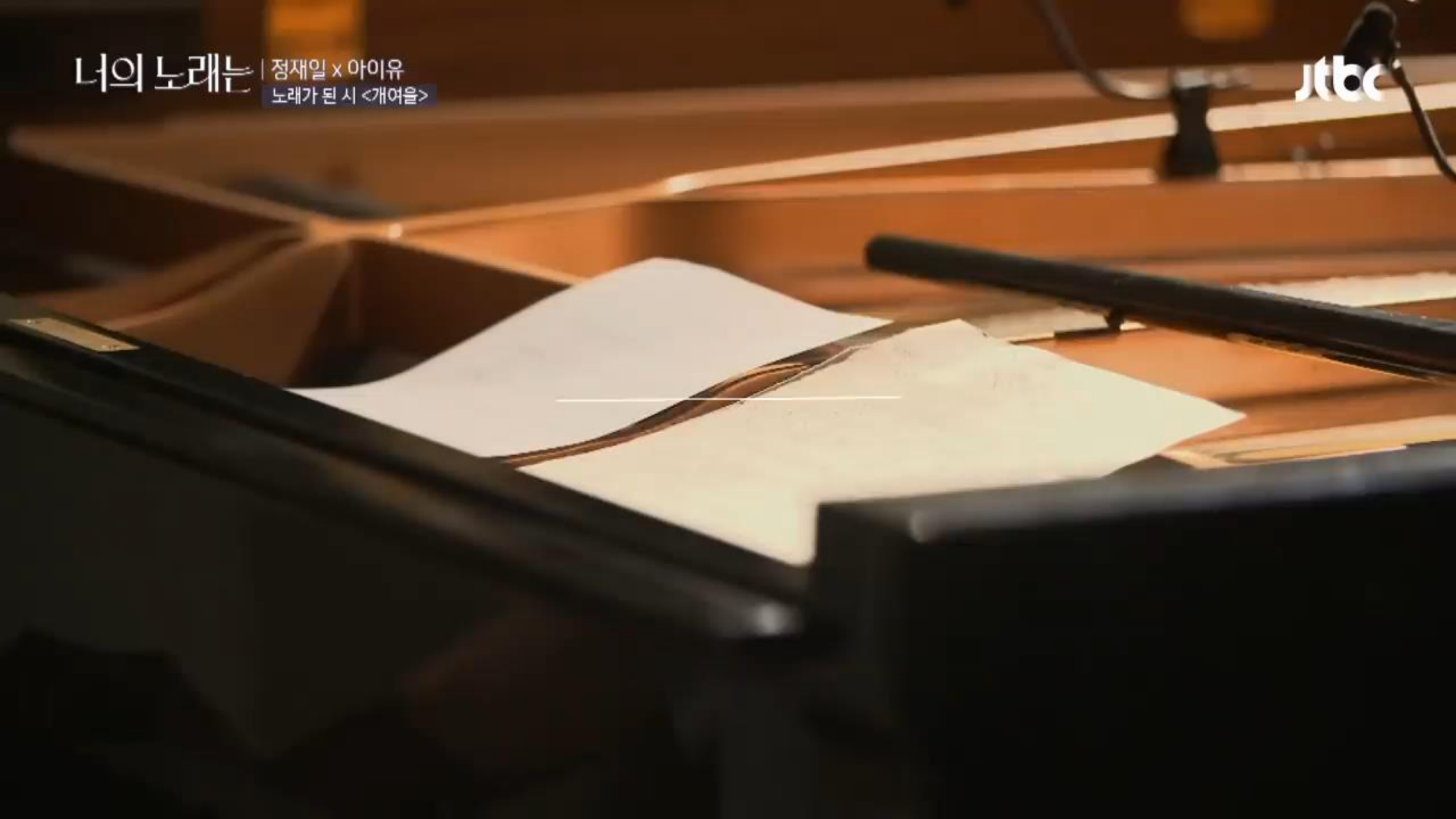
# 시적 화자

일정한 대상이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나 태도를 나름대로 표명하는 언어 행위를 ‘**언술(言述)**’이라고 한다. 시 또한 언술의 한 양식이다. 시란 궁극적으로 **어떤 세계에 관한 시인의 의사 표명**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시적 언술은 실용적 차원에서 발화되는 일상적 언술, 실용적 차원에서 발화되는 과학적 언술과 달리 정서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시는 언술의 한 양식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의 화자가 있다.

시 속의 나는 현실적인 나는 아니다. 시 속의 나는 허구 속의 존재이며, 어디까지나 창조적 공간인 작품 속의 나이다. 그러므로 그 나는 객관화된 나이며 화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어떤 국면에서 **형식화된 인간으로서의 나**이다. 시 속의 나는 주관적 감정을 드러내는 일상적 자아가 아니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정서를 드러내는 유형적, 개별적 존재로서의 나**이다. 세계 속의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각종의 의식화된 정서를 작품 속에서 개별적이거나 혹은 유형화된 형태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정서를 형식화된 것이며, 형식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형식적 양상을 보여주는 무질서한 현실 속의 나의 그것과 구별된다.

너의 노래는 | 정재일 x 아이유  
노래가 된 시 <개여울>

Jt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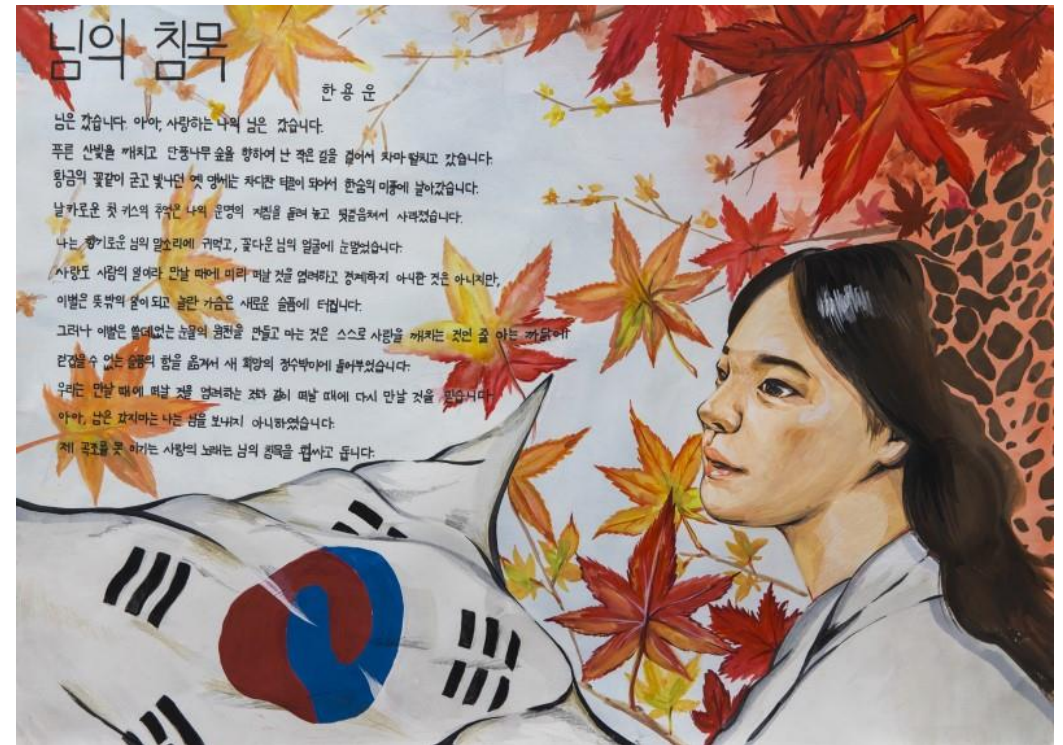


# 시적 화자가 시인의 대리인으로 해석되는 문제

봄은 가나니 저문날에,  
꽃춘 지나니 저문봄에,  
속업시 우나니, 지는꽃춘,  
속업시 늦기나니 가는봄을,  
꽃지고 넘진가지를 잡고  
밋친듯 우나니, 집난이는  
해다지고 저문봄에  
허리에도 감은첫치마를  
눈물로 함씩히 쥐여짜며  
속업시 우노나 지는꽃춘,  
속업시 늦기노나, 가는봄을.



김소월, <첫치마>



죽음은 버스를 타러 가다가  
건기가 귀찮아서 택시를 탔다

나는 할 일이 많아  
죽음은 쉽게  
택시를 탄 이유를 찾았다

죽음은 일을 하다가 일보다  
우선 한잔 하기로 했다

생각해 보기 전에 우선 한잔 하고  
한잔 하다가 취하면  
내일 생각해 보기로 했다

내가 무슨 충신이라고  
죽음은 쉽게  
내일 생각해 보기로 한 이유를 찾  
았다

술을 한잔 하다가 죽음은  
내일 생각해 보기로 한 것도  
귀찮아서  
내일 생각해 보기로 한 생각도  
그만두기로 했다

술이 약간 된 죽음은  
집에 와서 TV를 켜놓고

내일은 주말여행을 가야겠다고 생  
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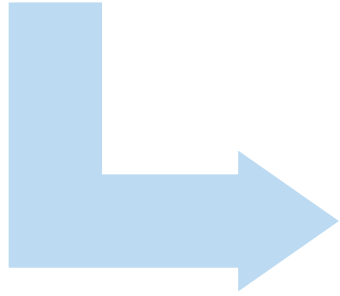
건강이 제일이지-  
죽음은 자기 말에 긍정이 뜻으로  
고개를 두어 번 끄덕이고는  
그래, 신문에도 그렇게 났었지  
하고 중얼거렸다

오규원, <이 시대의 죽음 또는 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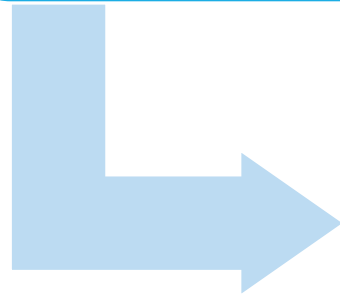
시인

- 함축적  
시인



(현상적)  
화자

- 현상적  
청자



독자

- 함축적  
독자

눈이 많이 와서  
산엿새가 벌로 내려 맥이고  
눈구덩이에 토끼가 더러 빠지기도 하면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보다  
한가한 애동들은 어둡도록 꿩사냥을 하고  
가난한 엄마는 밤중에 김치가재미로 가고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사서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뜨게 하며  
이것은 오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양지귀 혹은 능달쪽 외따른 산 옆 은땡이 예데가리 밭에서  
하로밤 뽕오얀 흰김 속에 접시귀 소기름불이 뿌우현 부엌에  
산명에 같은 분들을 타고 오는 것이다.

이것은 아득한 넷날 한가하고 즐겁든 세월로부터

실 같은 봄비 속을 타는 듯한 녀름 속을 지나서 들쿠레한 구시월 갈바람 속을 지나서

대대로 나며 죽으며 죽으며 나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의젓한 마음을 지나서 텅텅한 꿈을 지나서

지붕에 마당에 우물 둔덕에 함박눈이 폭폭 쌓이는 여늬 하로밤

아베 앞에 그 어린 아들 앞에 아베 앞에는 왕사발에 아들 앞에는

새기사발에 그득히 사리워오는 것이다.

이것은 그 곶의 잔등에 업혀서 길러났다는 먼 넷적 큰 마니가

또 그 집등색이에 서서 자채기를 하면 산넘엿 마을까지 들렸다는

먼 옛적 큰아바지기 오는 것같이 오는 것이다.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히수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습습한 것은 무엇인가

겨울밤 찜하니 익은 동티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땡추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산펍의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담배 내음새 탄수 내음새 또 수육을 삶는 육수국 내음새

자육한 더북한 샷방 찢찢 끓는 아루굴을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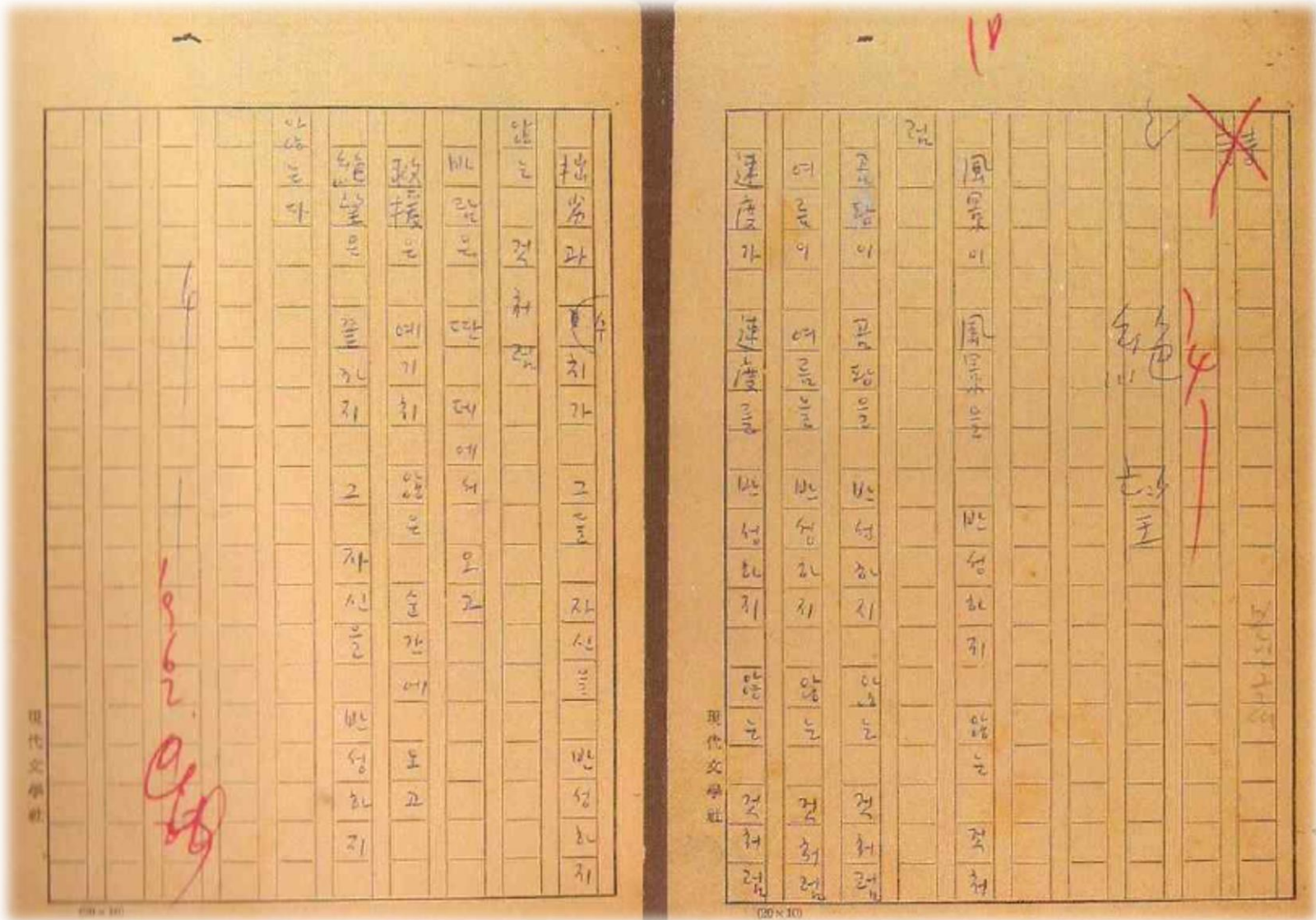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의 으젓한 사람들과 살뜰하니 친한 것은 친한 것은 무엇인가

이 그지없이 고담(枯淡)하고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김치가재미 : 북쪽 지역의 김치를 넣어 두는 창고, 헛간  
양지귀 : 햇살 바른 가장자리  
은덩이 : 가장자리  
예대가리밭 : 산의 맨 꼭대기에 있는 오래된 비탈밭  
산명에 : 이무기의 평안도의 말  
분틀 : 국수 뽑아내는 틀  
큰마니 : 할머니의 평안도의 말  
집등색이 : 짚등석, 짚이나 칩덩쿨로 짜서 만든 자리  
자채기 : 재치기  
댕추가루 : 고추가루  
탄수 : 석탄수  
삿방 : 삿(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를 깐 방  
아르굴 : 아랫목



풍경이 풍경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곱팡이 곱팡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여름이 여름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속도가 속도를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졸렬과 수치가 그들 자신을 반성하지 않  
 는 것처럼  
 바람은 딴 데에서 오고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고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  
 다.



## 시적 화자(시적 자아)라는 특정한 관점



## 뼈아픈 후회

황지우

슬프다

내가 사랑했던 자리마다

모두 폐허다

완전히 망가지면서  
완전히 망가뜨려놓고 가는 것; 그 징표 없이는  
진실로 사랑했다 말할 수 없는 건지  
나에게 왔던 사람들,  
어딘가 몇 군데는 부서진 채  
모두 떠났다

내 가슴속엔 언제나 부우영게 이동하는 사막 신전;  
바람의 기둥이 세운 내실에까지 모래가 몰려와 있고  
뿌리째 굴러가고 있는 갈퀴나무, 그리고  
말라가는 죽은 짐승 귀에 모래 서걱거린다  
어떤 연애로도 어떤 광기로도  
이 무시무시한 곳까지 함께 들어오지는

못했다, 내 꿈틀거리는 사막이.  
끝내 자아를 버리지 못하는 그 고열의  
신상(神像)이 벌겁게 달아올라 신음했으므로  
내 사랑의 자리는 모두 폐허가 되어 있다

아무도 사랑해본 적이 없다는 거;  
언제 다시 올지 모를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내 뼈아픈 후회는 바로 그거다  
그 누구를 위해 그 누구를  
한번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

젊은 시절, 내가 자청한 고난도  
그 누구를 위한 헌신은 아녘다  
나를 위한 헌신, 한낱 도덕이 시킨 경쟁심;  
그것도 파워랄까, 그것마저 없는 자들에겐  
희생은 또 얼마나 화려한 것이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걸어 들어온 적 없는 나의 폐허;  
다만 죽은 짐승 귀에 모래의 말을 넣어주는 바람이  
떠돌다 지나갈 뿐  
나는 이제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다  
그 누구도 나를 믿지 않으며 기대하지 않는다.

내가 잠든 사이 울면서  
창문을 두드리다 돌아간  
여자처럼

어느 술집  
한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거의 단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술잔을 손으로 만지기만 하던  
그 여자처럼  
투명한 소주잔에 비친 지문처럼

창문에 반짝이는  
저 밤 빗소리

박형준, <빗소리>

# 언술을 자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으로 간주할 경우 생기는 문제

---

첫째, 시적 공간 전체가 일종의 **진공상태**가 된다.

둘째, **대상의 실체성**이 사라진다.

셋째, 시의 **다층적 차원**이 사상(捨相)되고 만다.

넷째, **타자와의 관계가 왜곡**되므로 어조, 이미지, 율격, 반어 등 시학의 여러 측면들이 불구화된다.



# 주체는 무엇인가

---

‘주체’는 단일한 목소리를 가진 한 사람이 아니라 **특정 발화가 만들어내는 수행적인 효과를 이르는 이름**이다. 다시 말해 주체는 시적 언술을 산출하는 ‘실체’가 아니라, 이 **언술들의 구조화된 장(場)에서 생겨나는, ‘말하는 것으로 가정된’ 어떤 지점**이다.

한 편의 시에서 구현되는 목소리는 1) 일련의 대상들을 취합하고 정돈하고 배열하는 지배자가 아니라 **대상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준점**이고, 2) 쪼개지거나 변형되지 않는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특정한 언술들을 낳는다고 가정된 가상의 지점이며, 3) **대상 전체에 특별한 성격을 부여하는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그런 감정을 흘려드는 귀결점**이다. 각 항목의 전자를 ‘자아’의 것이라 한다면, 후자는 ‘주체’의 것이다. 시를 자아와 세계의 동일시로 보는 것보다 **세계의 실상을 드러내기 위해 ‘주체’에 주목해야 된다.**

나는 다시 노래를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죽은 이의 결혼식을 보러 갔지요, 라고

신랑은 심장을 도려냈어요  
자궁만이 튼튼한 신부는 신랑의 심장자리에  
자신을 밀어넣었습니다

신랑의 심장자리에 신부의 자궁은 먹새우처럼 굴글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지상에 있을 때 신랑이  
소공동 어느 상가에서 산 반지처럼 먹새우처럼

그렇게 굴글려 있던 신부를 나는 보았지요

검정개울에 햇물풀이 자라나고  
술 실은 자전거를 타고 밤이 달을 굴리며 결혼식장으로 오고 있었어요

나는 다시 노래를 할 수 있어요  
어느날 죽은 이의 결혼식장에서 나는  
낮잠에 이끌리듯 누런 술을 마셨노, 라고

허수경, <나는 어느 날 죽은 이의 결혼식을 보러 갔습니다>

# 시적 화자로 읽었을 때와 시적 주체로 읽었을 때

---



요롱이는 말한다. 나는 정말 요롱이가 되고 싶어요. 요롱요롱한 어투로 요롱요롱하게. 단 한번도 내리지 않은 비처럼 비가 내린다. 눈이 내린다고 써도 무방하다. 요롱이는 검은색과 검은색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한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마침표를 잃어버린 슬픔, 양말을 꺼야만 하는 외로움. 그건 단지 요롱요롱한 세상의 요롱요롱한 틈새를 발견한 요롱요롱한 손가락의 요롱요롱한 피로.

보이지 않는 틈 속으로 한 발을 들이밀면 더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어디선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 가슴속 모음이 가슴에서 눈으로, 눈에서 입으로, 입에서 울음으로 옮겨가는 일을 보는 일은 요롱요롱하다. 울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당신만의 요롱이를 찾지 못했을 뿐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내 잘못이 아니어도 요롱요롱 용서를 구하고 싶다.

얼어붙은 영하의 영혼으로, 텅길 듯한 용수철의 탄성으로. 요롱이는 떠나온 자리를 매순간 들여다본다. 먼지같은 삶은 감수한 지 이미 오래. 과연 내일이 와도 요롱요롱 밥을 먹고 요롱요롱 울다가 요롱요롱 잠들고 요롱요롱 깨어나 요롱요롱 흘러가는 구름을 볼 수 있을까. 꼭 맞는 옷, 꼭 맞는 장갑, 꼭 맞는 장화, 꼭 맞는 헬멧을 쓰고.

나는 정말 요롱이가 되고 싶어요. 요롱요롱한 어투로 요롱요롱하게. 정말 요롱이가 된다면 정말 요롱이가 된 기분이 들 테지. 고딕체의 마음으로, 소수점 이하로 무한질주하는 원주율의 아름다움으로. 단 한번도 내리지 않은 꽃처럼 신열이 내린다. 어둠이 내린다고 써도 무방하다.

이제니, <요롱이는 말한다>

1028개 마루에 동시에 울려 퍼진다. 우리는 곧 정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로 이 마이크와 당신의 스피커에 전류는 끊깁니다. 지금 당신이 땡땡,

소리를 들었다면 맨 마지막 초인종입니다. 603호의 어둠 속으로 한 남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실루엣은 바야흐로 덩어리입니다.

많은 여자들이 울었고, 더 많은 남자들이 울었고, 아이들이 보챘습니다. 가령, 1104호 여자애의 드라이기에서 더 이상 뜨거운 바람은 나오지 않고, 여자애는 젖은 머리칼을 그냥 베개에 쏟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누군가 눈감아버리고,

또 당신들은 기어이 촛불을 들고 서서 유령처럼 서로를 확인하고, 동시에 깜짝 놀라고,

동시에 전원이 확, 켜지고,



# 참고문헌

---

김수영, 《김수영 전집》, 민음사, 2003.

황병승, <여장남자 시코쿠>, 《시와세계》 5호, 시와세계, 2004.

강영주, <시적 주체 개념을 통한 현대시 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권혁웅, <시적 주체와 시적 상황>, 《우리문학연구》 제69호, 우리문학회, 2021.

\_\_\_\_\_, 《시론》, 문학동네, 2010.

신형철, <문제는 서정이 아니다>, 《문학동네》제12권 3호, 2005.

오규원, 《현대시작법》, 문학과지성사, 1990.